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김영찬기자 | 승인 2026.05.18 18:01 | 11면

공유·입사저수지 대상 유관기관 합동훈련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의령지사는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저수지를 대상으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저수지를 대상으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의령군청, 의령소방서, 긴급복구동원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약 30여명이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저수지 수위 급상승 및 제방 붕괴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연락체계 가동 ▲현장 초동 대응 ▲주민 대피 유도 ▲긴급 복구 장비 투입 등 단계별 절차를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 및 보고 체계를 숙달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현장 공조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재경 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저수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기에 앞서 전국 지사별로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한 관리와 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